



순천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도심지역 소비자를 찾아가다

오는 30일 '조례호수공원점' 임시 개장



순천시는 오는 30일 조례호수공원 동편에 순천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인 '조례호수공원점'을 임시 개장한다

이번에 개장하는 순천 '조례호수공원점' 직매장은 2016년 5월 순천만국가정원 동편에 개장한 '순천만국가정원점'에 이어 두 번째 매장이며, 운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험운영을 거친 후 오는 6월 7일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직매장은 지상 2층 300평 규모로 지역 농가가 재배한 신선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등 총 588여 품목을 판매하고 수산물 반찬코너도 새롭게 입점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판매 운영한다. 또한 직매장 2층 카페 '이름'은 전문 바리스타가 만드는 차 종류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로 만든 건강주스, 해독주스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음료를 판매할 예정이며 도심지역 소비자에게 휴식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페 이름 '이름'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이어주는 공간,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직매장 농산물은 수확·포장·가격결정·재고관리 등을 농가가 직접 결정하고진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신선농산물의 경우 1일 유통을 원칙으로 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품목의 제철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인 '순천만국가정원점'의 운영성과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문을 열게 된 직매장 2호점인 '조례호수공원점'은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도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고 더불어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개장 당일 오전 11시부터 로컬푸드 시식행사, 기념품·할인권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순천로컬푸드(061-741-8879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전기 야드트랙터 시연회 개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친환경 전기 야드트랙터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30일 월드컵센터와 한국국제터미널에서 시연회를 개최한다.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를 이송하는 야드트랙터는 화석 연료인 경유를 사용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등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서호전기, 한국국제터미널과 전기 야드트랙터 개발을 위한 E-Y/T 개발 업무협약 및 맺고 시제품을 개발해 왔다. 이번에 개발된 전기 야드트랙터는 1대당 연간 약 23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와 약 70%의 연료비 절감효과, 소음·진동 등 운전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나주시, '숲 태교' 프로그램 진행

전남산림자원연구소와 MOU
나주시 산포면 소재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숲을 활용한 태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 보건소는 지난 25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산림자원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신부의 심신 안정 및 건강한 출산을 돕는 '숲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 태교는 숲에서 발생하는 신체에 이로운 물질을 오감으로 느끼며 태아와 교감하는 활동이다. 특히 임신기간 중 발생하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우울, 불안감, 감정기복이 잦은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파톤지드, 음이온 등을 통한 심폐기능 강화,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는 오는 6월 21일과 28일 2회 연속 참여할 수 있는 평일반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숲 태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신부의 심신 안정을 위한 오감만족 숲길 걷기, 명상, 요가, 아기 건강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하는 숲 태교 프로그램에 관련한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매실로 빛은 6차 산업 활력증진

매년 3월, 광양매축제를 시작으로 광양매실 이야기가 펼쳐진다. 5월에는 탐스러운 광양매실이 서서히 소비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6월이면 본격적인 매실 수확이 시작된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매실을 약재로 사용했다.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면 매실을 갈증과 가슴의 열기를 없애는 약재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업화 매실은 1970년대에 들어서 광양시를 중심으로 매실나무가 집중적으로 심어지면서 태동하였다. 광양매실은 전국의 25%를 점유한다. 1990년대에 매실농사를 짓는 농사꾼 한 명이 유명해졌는데,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에 위치한 청매실농원의 홍성리 명인이다.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농장에 매화나무를 심고 매화와 매실을 자식처럼 애지중지하게 가꾸어 전국 매실농가의 소득원으로 자리하게 만든 것이다. 또한, 광양매실은 전국 최초로 지리적표시 제36호로 등록될 정도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하지만 매실 재배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매실의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매실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매실산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광양매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광양시는 매실 생산에만 집

중해 오던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가공, 체험, 판매를 융·복합하는 6차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실의 판매와 소비를 활성화하여 광양매실 생산기반의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광양매실의 6차 산업화를 위해 구성된 광양원매실 6차 사업단(광양원협)은 참여 조직간 연계를 통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오메(OH!梅)왔는가' 매실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고 광양매실 가공제품의 시음·시식행사와 요리법 개발을 통한 소비 촉진, 참여업체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광양매실 6차 산업화 알리기 등을 실시하고 있어 광양매실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2030 미래비전수립 합동워크숍 개최

'시민의 더 나은 삶' 목표 7개 분야 105개 전략과제 발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하고 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시대 도약을 위한 2030년 순천시의 미래 청사진이 나왔다. 순천시는 최근 2030 미래비전수립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의 전문가와 공무원 TF, 부서담당자, 연구진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개월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2030 순천시 미래비전은 지난해 8

일부터 총4회 590여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 워크숍 등의 과정을 거쳐 7개 분야 105개 전략과제를 발굴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분야별 전략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 진행됐다. 특히, 각 부서담당자와 시민들이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를 직접 진행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높였다. 2030미래비전에는 창의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다양성과 혁신으로

화순군, 드림스타트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



프로야구 관람

에 놓인 대상아동 가족의 친밀감을 향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2018 프로야구 정규리그 상위 기록 경쟁이 치열한 기아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야구경기를 관람했다. 이날 야구경기 관람을 했던 한 대상아동은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야구 관람을 해 오늘이 꼭 내 생일인

것 같다"며, "TV로만 보았던 선수들을 실제 야구장에서 직접 볼 수 있어 좋았고 내가 열심히 응원한 팀이 이기기까지 해서 기분이 너무 좋다. 나중에 훌륭한 야구선수가 돼 멋진 유니폼을 꼭 입고 싶다. 오늘 일거리에 쓸 내용이 많을 것 같아 신난다"며 밝게 웃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아동 양육자(부) 윤모씨는 "이이를 혼자 양육하면서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프로그램 첫 참석인데, 그동안 직장 다니느라 주말에도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어 참 행복했다"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었다는 데 뿌듯함을 느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